

새로운 시대정신 품은

ACC '엑스뮤직페스티벌'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엑스뮤직페스티벌(XMF)'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재단)은 오는 8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ACC 예술극장 1·2와 열린마당 등에서 '엑스뮤직페스티벌(XMF)'을 연다. 이번 리뉴얼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음악의 최전선'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체성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일일 예술감독은 "월드뮤직이라는 명칭이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나 시대 흐름과 어긋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X는 교차와 경계를 넘어서는 혁신, 장려 없음(borderless), 완성수(10)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X는 새로운 세대의 정신을 상징하며, 글로벌 음악계가 지향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페스티벌은 개막공연 'X의 제전'을 시작으로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협업 무대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개막공연은 김도연 퀸텟의 김도연 씨가 음악감독을 맡는다. 김도연은 가야금을 중심으로 재즈와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실험적 음악가다. 이번 무대에서는 배일동·전송아·송지윤·방수미·여성 트리오 힐금·미국 기반 연주자 Peter Evans, Philip Golub, Sam Minaie, Satoshi Takeishi·전주판소리합창단 등과 다국적 협연을 선보인다.

내달 29-31일 ACC 일대서 개최
김도연퀸텟·터치드·프란&플로라 등
장르·국적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



김도연퀸텟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엑스뮤직페스티벌(XMF)'로 열린다. 사진은 왼쪽부터 터치드, 카더가든X오존, 프란&플로라와 지난해 열린 ACC월드뮤직페스티벌.

출연진 라인업은 장르와 국적, 음악적 색깔을 넘나드는 구성으로 눈길을 끈다.

29일에는 전통 타악과 전자음악을 결합한 '한일 타심(민영치×히다노 슈이치)', 일렉트로닉 기반 그룹 '애니멀 다이버스(Animal Divers)'가 무대에 오른다.

30일에는 최근 앨범 발표로 주목받은 '오존×카더가든'이 페스티벌 최초로 신곡 무대를 공개한다. 다국적 앙상블 '누빈킴 그룹(Nubim Kim Group)'은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연주자들과 함께 작곡가 중심의 새로운 사운드를 선보인다.

레게 팬들을 위한 무대도 마련됐다. 2023년 그래미 최우수 레게 앨범 수상자인 자메이카 아티스트 '카바카 피라미드(Kabaka Pyramid)'가 참여해 여름 밤을 뜨겁게 수놓을 예정이다.

31일 마지막 날에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전송이 노넷×사물놀이 느닷'과 무속과 일렉트로닉을 결합한 'blksana' 공연이 펼쳐진다. ECM 소속 바이올리니스트 엘리스 자바스키와 국내 트리오 '힐금' 등 여성 뮤지션들의 협업 무대도 주목할 만하다.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밴드 '터치드(Touched)'의 무대에 이어 영국 밴드 '프란&플로라(Fran & Flora)'가 감성적인 피날레를 장식한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선 '언더X'를 통해 선보인 신예 3인조 정식 무대에 올라 XMF의 미래 지향성을 상징하게 된다.

한편 행사 기간에는 워크숍, 강연,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개막 공연 음악감독인 김도연이 큐레이션하는 '앙상블 마스터클래스', 영국 재즈페스티벌의 총괄 디렉터 데이비드 존스의 강연 등도 마련돼 있다.

관람권은 3일권 10만원, 1일권 4만원이다.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3일권 600석에 한해 40% 할인된 6만원에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 확인.

일일 감독은 "이번 행사는 새로운 음악적 가치가 탄생하는 실험의 장이자 국제적 페스티벌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가 음악 분야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



연기·연극·뮤지컬·영상제작
지역 중·고교생 14일까지 모집

전남도와 (재)전남영상위원회가 '제14회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 참가 학생 50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는 전남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숙박형 캠프다. 2010년부터 13년간 매년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8일부터 8월2일까지 5박6일 동안 광양 서늘대학교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연기, 연극, 뮤지컬, 영상 제작 등 4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며 배우 최수종을 비롯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연출가, 제작자, 배우가 직접 멘토로 참여해 청소년에게 엔터테이너 분야 실질적 진로 탐색과 체험을 돕는다.

참가 신청은 포스터에 기재된 정보(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양시원기자



'하서 김인후 조명'

9회 호남문화 학술대회
내일 장성문화예술회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현대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제9회 호남문화 심층연구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과 필암서원은 오는 10일 오후 1시30분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주제는 '하서 김인후, 지성과 실천 - '하서전집' 국역을 통해 본 학문과 사상의 현대적 가치'다. 조선 시대 호남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인 하서 김인후의 정신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인후 선생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다섯 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김창호 원광대 교수 '하서 김인후의 시세계' ▲김용재 성신여대 교수 '호남의 사자, 하서 김인후의 의리와 시대정신' ▲안동교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장 '하서 김인후의 교육활동과 문인들' ▲조미은 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연구부장 '조선후기 하서 김인후의 증시와 문묘배향 연구' ▲최해미 고려대 교수 '하서전집 소재 한시의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 발표가 차례로 진행된다. /최명진기자

현악으로 풀어낸 삶과 이별의 선율

앙상블 칸타빌레 연주회
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클래식 연주단체 앙상블 칸타빌레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2025 정기 연주회 '죽음과 소녀'를 선보인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체코 낭만주의 작곡가 요세프 수크의 '세레나데'를 시작으로, 막스 브루흐의 '로망스', 프란츠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구스타프 말러 편곡)까지 세 곡을 차례로

선보인다.

관객들은 삶의 아름다움, 사랑의 그리움, 죽음의 정서가 각각 담긴 곡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지휘는 파리 스콜라 칸토룸에서 수학한 문진탁이 맡았으며, 브루흐의 '로망스'에서는 국내 외에서 활동 중인 비올리스트 엄광용이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앙상블 칸타빌레는 2022년 창단 이후 광주와 담양, 이탈리아 피렌체 등에서 다양한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 공연과 찾아가



는 음악회를 꾸준히 펼치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무대는 계속된다. 7월에는 담양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담구석 문화배달'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과 직접 호흡하며, 11

월에는 청년예술인 공공 프로젝트 '청춘, 예술로 찬란하게' 공연에 참여해 지역 청년 음악가들과 따뜻한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최명진기자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여수지사 061)851-643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